

■ 허정무호 사우디 원정대 내달 3일 확정



박지성

이영표

김동진

해외파 3인 다시 뿔다

중동의 모랫바람을 뚫고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꾀하는 허정무호가 다음 주 초 사우디 아라비아 원정길에 오를 축구 국가대표를 확정한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29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24라운드 수원-서울전과 주말 경기에서 국내 선수들의 폼 상태를 점검한 뒤 빠르면 11월3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사우디 원정 명단 23명 안팎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다음 달 10일 소집되고 같은 달 11일 출국해 카타르와 평가전(14일)에 이어 11월 19일 사우디와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을 치른다. 허정무 감독은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23명 내외를 끝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허 감독은 우즈베크전 3-0 승리와 UAE전 4-1 대승을 합작했던 명단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전망이다. 우즈베크전과 UAE전에서 화끈한 공격을 보여줬고 수비도 조용형(제주)이 실수로 유일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걸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기존 대표팀 멤버를 끌고 가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UAE전 때 주장 완장을 차고 1골 1도움 활약을 펼쳤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UAE전 멤버들 대부분 유지
신영록·김두현 합류 불투명
정계 풀리는 이운재도 관심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오른쪽 풀백을 맡아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던 이영표(도르트문트), 왼쪽 풀백 김동진(제니트) 등 해외파 3명은 재발탁이 유력하다. 또 A매치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는 빼어난 골 감각을 과시한 이근호(대구)와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장신(190cm) 공격수 정성훈(부산)도 재선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젊은 패기가 돋보이는 FC 서울의 '듀오' 기성용, 이청용과 노련미를 자랑하는 미드필더 김정우(성남)도 허정무호 재합류가 점쳐지고 중앙 수비요원인 '골 넣는 수비수' 광태휘(전남)와 강민수(전북)도 한 자리를 예약했다.

경고 누적 탓에 UAE전에서 뛰지 못했던 김남일(빛셀 고베)의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전 골키퍼 정성룡(성남)과 공격수 서동현(수원), 최성국(성남), 미드필

더 김형범(전북), 조원희(수원)도 허정무 감독의 호출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허벅지 부상으로 재활 중인 공격수 신영록(수원)은 대표팀 탈락이 예상되고 무릎 부상으로 UAE전 명단에서 빠졌던 프리미어리그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도 사우디 원정 합류가 불투명하다.

대신 부상에서 회복된 '인발 스페셜리스트' 엄기훈(울산)과 중앙수비수 김진규(서울), 프랑스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공격수 박주영(AS모나코)도 허 감독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35세의 나이에도 눈부신 선방을 펼치는 '거미손' 골키퍼 이운재(수원)의 대표팀 선발 여부는 허정무 감독의 고민거리.

K-리그 최고의 수문장으로 꼽히는 이운재는 지난해 아시안컵 음주과문으로 받았던 대표팀 1년 자격정지가 11월2일로 풀린다. 허 감독으로서서는 뽑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 당연지사.

하지만 대표팀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던 정성룡이 나름대로 골문을 잘 지키는 데다 UAE전 대승의 상승세를 살려 2010년까지 대표팀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운재를 뽑는 게 다소 부담스럽다. /연합뉴스

北 축구스타 정대세 친형 국내서 활약

정이세, 실업팀 협매과 1년 계약

북한 축구대표팀 공격수 정대세(24·가와사키)의 친형인 정이세(27)가 국내 실업축구 노원 협매에서 뛴다.

한규정 협매 단장은 29일 "구단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은 골키퍼 정이세와 계약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1년 기간으로 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매는 이로써 지난해 8월 미드필더 고상덕(25)을 영입한 이후 두 번째로 조선인종

연합회(조총련)계 재일교포 선수를 보유하게 됐다.

최근 협매 선수단에서 팀 훈련을 소화하고 연습 경기를 통해 기량을 점검받은 정이세는 큰 키는 아니지만 골키퍼로서 중요한 순발력과 판단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키 177cm인 정이세는 일본에서 3부리그 수준의 클럽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연합뉴스

육상에서... 수영에서... '金소식'



29일 광주 빛고래체육관에서 열린 2008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보치아경기에서 광주대표 임다현이 공을 던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이경대·김민석
전남-성용수·위헌철
나란히 금 2개씩 획득

■ 장애청소년체육대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창립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08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광주와 전남이 나란히 금메달 2개씩을 따냈다.

29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육상 트랙 남자 100m에서 이경대가 광주에 첫 금메달을 안겼고, 김민석은 수영 남자 50m 평영에서 금빛 물살을 갈랐다.

이동현은 육상 필드 남자 원반던지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광열도 육상 트랙 남자 100m에서 역시 은메달을 따냈다. 김하은(T13/T12·시각장애)과 이지민(DB·청각장애)도 각각 육상 트랙 여자 100m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종표(육상 남자 원반던지기),이준석(육상 트랙 남자 100m), 모세민(씨름 남자 개인전 오픈), 김민석(수영 남자 50m 자유형), 유철훈(육상 트랙 남자 100m), 김태하(씨름 남자 개인전 오픈), 조민지(육상필드 여자 포환던지기), 손은아(탁구 여자 단식)등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성용수가 육상 트랙 남자 100m T12(시각장애)에서 금빛물줄을 펼쳤고, 위헌철도 육상 트랙 남자 100m DB에서 역시 금메달을 따냈다. 윤진섭은 남자 100m T13/T12/T11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최희준과 김경환은 각각 육상 필드 남자 원반던지기 와 탁구 남자 단식에서 역시 동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0일 (목)

▲2008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6차전(콜라비아·탬파베이)(09:25·XSPORTS)

▲2008 KRA컵 탁구 세미프로 남자부(상무:대우증권)(14:00), 여자부(한국마사회:삼성생명)(18:30·KBS N SPORTS)

▲2008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14:00·MBC)

▲2008 SBS코리아투어 동부화재 프로미배 에텐밸리 리조트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16강(13:00·SBS골프)

▲2008 프로야구 코리아 시리즈 4차전(두산:SK)(17:50·MBC)

'축구 영웅' 마라도나
아르헨 대표 감독 내정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48·사진)가 선수 시절 명성에 걸맞게 지도자로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29일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마라도나를 새 대표팀 사령탑으

로 내정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축구협회는 1986년 멕시코월드컵 우승 당시 대표팀 감독이었던 카를로스 빌라르도, 마라도나와 만나 이같이 결정했고 이런 내용은 마라도나의 48세 생일인 30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Support'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categories like Wedding Dress, Beauty Salon, Restaurant, etc.